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용접, 철구조물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골든스텝 꽃집
결혼식꽃 전문
각종 행사 및 기념일
서재옥(토마스), 서애경(데레사)
770-992-1797

회계법인태평양 (구 시원회계법인)
정시욱 루뽀 CPA
770-817-9600
3175 Satellite Blvd., Suite 325, Duluth, GA 30096

오즈냉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Smile 스텝스마일 원 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김세희 소화테레사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아세아 여행사
미셸 박
404-819-9227
(카톡, 텍스트)
michellepark@hotmail.co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SO GOOD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전문점)
www.sogoodbridal.com 470-545-2640
www.sogoodbb.com 678-580-2181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공항서비스·대리운전·관광안내·회사어카운트
올림픽 콜리무진
T. 770-696-7517 T. 678-699-5462
T. 010-5906-8945(한국에서)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국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용자 켈리김 770-634-5646

770-614-1738
성물점 GIFTS
GOLD·CROSSES·REPAIRS
·십자가, 선상 ·금, 은, 주문제작
·성화, 묵주, 책 ·신발수선
Suwanee Wal-mart 내 ·리-셔츠 프린팅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배용자(루시아)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조앤 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TOP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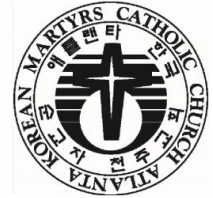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릭 H-Mart 건너편,
(파비마노) Bank of America 뒷건물

본당 성물방 시간:
매 주 (일)오전 9시 30
분부터 오후 1시까지
(예약 주문/상담가능)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lcpa.com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org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1964호 | 2018년 11월 11일 |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 발행인: 이재욱 요한 신부

- † 미사 시간
일: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15분(영어)
월: 없음
화: 정오 12시
수: 오후 7시 30분
오후 8시 (구역미사)
목: 오후 7시 30분
금: 정오 12시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30-오후 3:00
월: 휴무
화 ~ 금: 오전 10시-오후 6시
토: 오전 10시-오후 6시

- † 본당신부
이재욱 요한
Johan Chae-uk Lee, S.J.
lcujhnsj@hanmail.net
- † 보좌신부
김형철 시메온
Simeon Hyung Chul Kim, S.J.
grisanchung@daum.net
- † 사목회장
왕일모 미카엘
Michael Il Mo Wang
352-359-2151
kmccga.chair@gmail.com

김주찬(알베르도) 신부님
환영합니다!!!



- 1977년 출생
- 2008년 2월 한국 예수회 입회
- 2010년 2월 첫 서원
- 2013년 8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철학과 졸업
- 2014년 예수회 한국관구 요양공동체 요양 보호 담당
- 2015년 예수회 한국관구 후원회 담당
- 2017년 2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
- 2018년 5월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 대학,
Loyola School of Theology 졸업
- 2018년 6월 사제 서품

성 가 입당: 62 봉헌: 221, 340 성체: 161, 186 파견: 68

제 1 독서 열왕기 상 17,10-16 <과부는 밀가루로 작은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다주었다.>

화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서 히브리서 9,24-28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 12,38-44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병 중에 계신 분들

- 조남경(필립)
- 김계환(안토니오)
- 이중화(바오로)
- 조경희(글라라)
- 이창욱(크리스티나)
- 김송옥(테레사)
- 채종현(아오스딩)
- 이금숙(세실리아)
- 박정자(테레사)
- 박제봉(베드로)
- 이재일(그레고리오)
- 김미영(인덕마리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19년 부활절 영세를 위한 성인 예비신자들을 위해

전례분과

김상순 770-820-9132

구역분과

남현석 770-827-9987

성모회

서차영 770-723-0380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예비신자 교리반

이연숙 404-293-9319

선교분과

레지오 마리아

박순기 678-793-5881

성령기도회

김성애 678-779-1387

울뜨레아

조경희 404-610-8086

M.E.

손영덕 678-896-1837

C.L.C.

김옥경 770-912-8282

87. 제1차 세계대전과 교회

세계 교회사 100대 사건

— 평화 중재, 후유증 최소화 노력
 바티칸에 포로—가족 상봉 사무소 설치
 전례쇄신·성서보급·평신도 운동 시작



← 제 1차 세계대전은 37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참혹한 전쟁이었다.

20세기에 접어든 세계는 무려 37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역사상 어느 전쟁보다도 참혹한 대규모의 전쟁을 겪으면서 인류는 인간성에 대한 회의와 인간 이성애 대한 불신을 가슴 속에 품을 수 밖에 없었다.

1914년부터 4년간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가톨릭교회는 나름대로 국제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전쟁의 체험이 교회 안팎에서 놀라운 변혁의 동기가 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한 당시의 교황은 베네딕도 15세(1914~1922)였다. 1914년 7월 23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최후통첩을 한데 이어 즉각 세르비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28일 선전포고를 했다. 전쟁이 시작된 후 한 달 반 가량 지난 9월 6일 새 교황의 착좌식이 거행됐다. 이탈리아 출신의 자코모 델라 키에사 추기경은 서임된 지 불과 석 달도 채 안된 8월 20일 전임 교황 비오 10세가 서거함에 따라 열린 교황 선거에서 신임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쟁의 와중에서 아주 겸손하게 착좌식을 가진 베네딕도 15세는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폐허와 혼란 속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엄격한 중립 정책을 추구하면서 각 교전국에 평화 협정 체결을 요청했다. 교황은 『전쟁은 아무 쓸데 없는 대학살』이라고 정의하면서 공명정대하게 민족과 나라들간의 증오와 폭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1917년 8월 1일 교황은 공정한 평화 협정을 위해 교전국들에게 미리 준비한 장문의 평화 협정안을 제안했다. 이 협정안의 조항에는 △무력에 의하지 않는, 권리에 의한 평화 수립 △군비 축소 △강제력에 의한 분쟁 조정 방지 △해양의 자유 △배상금 제도 철폐 △점령 지역 회복 △영토권 등에 대한 우호적인 검토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제의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교전 당사자들은 정중하게 교황의 제안을 검토했지만 본래부터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만이 상세하게 답을 보내 왔을 뿐이었다. 전쟁과 함께 재위를 시작한 베네딕도 15세 교황은 지치지 않는 정열로 세계평화의 중재자로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했지만 결국 평화를 위한 제안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교황은 결코 굴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평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전쟁의 비극이 비인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교황은 종전 후 포로와 그 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국제 사무소를 바티칸에 설치했고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과 행방불명 된 군인들을 찾는 일, 부상병과 포로들의 송환, 망명자와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 등 전쟁의 고통과 후유증을 완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유럽이 승자와 패자로 갈려 전쟁의 비극이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우려하고 경고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럽 교회에는 넓고 깊은 변화와 쇄신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전임 교황들이 교권을 수호하고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데다가 특히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인류는 낡은 구속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작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교회 안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19세기는 가톨릭교회가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주의적 교회, 종파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적 오만함이 교회를 향해 계속적인 공격을 했다. 그것은 독일의 문화투쟁, 교황직 및 교황령에 대한 투쟁을 경험한 이탈리아의 리소르지멘토, 19세기 전환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반교회적 투쟁 등 때로는 존립마저 위협할 정도로 교회는 수세에 몰렸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세계로부터의 격리였으며 이는 학문, 문화, 정치 등에 있어서 세상과 공동의 작업을 어렵게 했다. 결국 교회는 근세의 가장 중요한 업적들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놓쳤다.→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LAW OFFICE OF
SE HO MOON, P.C.
YOUR IMMIGRATION NAVIGATOR
문세호 (시메온) 변호사
이민, 파산, 세금, 채무관계, 가정법
770-755-5388 sehoonmoon@yahoo.com

MBA, Real Estate, University of Florida
박지연 부동산
집찾는 마법사
770-687-0750
office: 770-557-1867
Bestrealtor4989@gmail.com
King Star Realty 주택,상가,투자,렌트 실비아

음악과 테니스 특수
한 장소에서!
김영혜 (가타리나)
자재 테니스 코트 6개를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 &
33년 전통과 실력의
AMA 음악학원 2호점
1호점 Suwanee
2호점 Sugarhill
770-862-4223

이크리스티나 보험 금융
678-665-3882
은퇴/연금/교육/생명보험

정승옥 변호사
(미카엘)
이민·입양·클로징·상법·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대건한국학교 2018-2019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안내
 *모집 대상: Pre-K(만 4세) - 고등학생, 성인
 *수업 기간: 2018년 8월11일~12월8일 (16주간)
 *수업 시간: 매주 토요일 09:15-12:30
 *수업 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특활 과 목: 난타(북,장고), 서예/한국화, 미술, 동화/연극, 태권도, 가베(유아반)
 *주요교내행사: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낱말/받아쓰기/동요/동화/발표력대회
 *등록일 자: 4/21~5/5 (추가등록:5/12~8/11)
 *등록 금: 한자녀 \$210/ 두자녀 \$370/ 세자녀 \$520 (교재, 간식, 교지\$10포함)
 *등록장 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또는 본당 사무실)
 Tel 770-455-1380 / Fax 770-455-4262 / Email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Payable to: KMCC Daegon Korean School

등록 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연락처 678-677-3515 노시현(네오미시아)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우편접수가능/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office)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방법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나창섭 (678-357-6381)/박형근 (770-861-2553)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T. 770.454.5640
595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RADFORD & KEEBAUGH
www.DecaturLegal.com
근로법·노동법 (Employment Discrimination, FMLA, Minimum Wage, Tip Credit, Overtime)
/헌법소송/기타 민사소송 전문
이승은 제르투르다 (Gertrude) 변호사
T: (678) 271-0304
Email: april@decaturlegal.com
315 W. Ponce de Leon Ave. Suite 1080 Decatur, Georgia 30030

2018년 AA 기금 납부 현황 (11월 4일 현재)

교구 할당액: \$54,100

금주 납부액: \$1,670 누계 납부액: \$59,878 달성율: 110.7%

2018 AA 기금 금주 납부자 (총 22명)

김영철	김원봉	김윤근	나영숙	박기선	박승자	박정애	박평하	박해영	박화자	서혁규	소종선	손영덕	송정길
이상용	이수진	이종상	이충자	최준태	최한수	한성인	한재만						

우리 공동체의 이모저모

<야외 합동 연령 미사> →

11월 3일(토) 오전 11시 GA Memorial Park에서 야외 합동 위령미사가 있었습니다.



<성모 신심미사> →

11월 3일(토) 오후 12시 미사는 성모 신심미사로 봉헌되었습니다.



<구역장 모임> →

11월 4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10호실에서 월례모임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2019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동유럽 성지순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일 친교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 루카 의료 봉사회>

11월 4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소성당에서 11월 정기 진료가 있었습니다.



<수도원 방문>

11월 3일(토) 예비신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교리 교사들(총 25명)이 Conyers에 있는 Monastery of The Holy Spirit 을 방문하였습니다.



<소년 소녀 레지오 마리아> →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소년으로 구성된 '셋별' 브레시디움 주회합이 대건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메주 띄우기 <마르코 12,38-44>

배영길 베드로 신부

간장이며 된장, 고추장 할 것 없이 모든 맛의 기본은 메주에 달려 있다고 하지.

그래서 어머니께서 메주 띄우는 일에 그토록 정성을 다했나 보다.

집 맛의 처음과 끝을 지키기 위해.

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사나.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남편 없이 아들과 하루 하루 먹고 살 걱정으로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가난한 사렘타 과부의 한숨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밀가루 한줌과 기름 조금이 전부인 현실보다 매일 마음을 죄어오는 그녀의 근심에 공감합니다. 호주머니에 달랑 동전 두 개가 전부인 한 과부의 처지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예수님께서 현금함 맞은 편에서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호주머니 속의 동전 두 닢을 만지작거리려보지만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은 이웃들이 떠오르고 이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현금함에 동전을 모두 넣습니다. 그녀의 가난한 처지도, 마음의 근심도 어렵지 않게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복음 산책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코 12,38-44>

한 현실보다도 '나눔'에 있음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나던 나그네 엘리야 예언자와 음식을 나누고, 성전에 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과 이웃에 봉헌한 따듯한 나눔이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나를 포함한 우리는 밀가루 한 줍이나 동전 두 푼보다는 더 가지고 있고 끼니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떤 물질적인 근심 없이 내일을 지낼 수 있는 사람도 드물

다고 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크고 작게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우리 처지에 있지 않고,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나눔'을 위한 나의 의지와 순수한 의도에 있겠습니까.

지난주 피정에서 수녀님께서 일러 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보다 나은 자리의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부족한 처지에 있는 최저 20%의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봉사와 나눔을 위한 할일을 찾으세요."

날씨도 쌀쌀해지고 곧 대립도 다가오고 하니 지금껏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를 반성하고 또 힘든 이웃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적 노력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무시됐었다. 프랑스에서 교회의 공화제에 대한 거부 19세기 말 반교회 투쟁을 낳게 했고 독일에서는 1차 대전 이후까지도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민주주의적 이해가 결여됐었다.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교회는 제때에 그 특성이 이해되지 못했었다. 교회가 뚜렷한 사회정책적 개념을 갖고 거기에 이웃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필요했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은 교회를 떠나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로 향했고 레오 13세 교황의 사회 회칙은 너무 늦게 나왔다. 교회가 자신의 유산층을 고집하고 있는 동안 노동자를 포함한 무산계급은 무신론적 마르크스주의로 넘어갔다.

교회 안에서 자각되고 있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은 전쟁의 체험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시작의 필요성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교회 변혁과 쇠신의 원동력이 됐다. 19세기부터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쇠신 노력들은 20세기 초반에 접어들어 본격화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례쇄신운동과 성서보급운동, 그리고 평신도 운동들이며 이러한 움직임들은 마침내 교회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쇠신운동 중의 하나인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 쇠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가톨릭 신문, 박영호 기자]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1월 4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677 명	
특전 미사	90명	오전 8시 30분	128명
오전 10시 30분	311명	종교학교 미사	148명
성물방	\$ 273.00	매일 미사	\$ 550.00
교무금	\$ 8,361.00	주일 헌금	\$ 4,746.84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18년 11월 4일)

계춘자 (11)	서영규 (11~12)	윤석진 (11)	장근철 (9)
권활경 (11)	서혁규 (11~12)	윤성진 (11)	장종순 (11)
김국환 (11)	설재규 (11)	윤순자 (7~12)	장해선 (8~11)
김덕중 (11)	성영구 (1)	은혜영 (9~10)	전성천 (10)
김득호 (10)	성의경 (11)	이광임 (11)	정청래 (11)
김영철 (11)	소중선 (10)	이덕환 (11)	정희웅 (11)
김용준 (11)	송용덕 (11)	이동춘 (11)	조보현 (10)
김원봉 (11)	송인명 (10)	이복화 (10)	조소춘 (11)
김윤재 (11)	송정길 (10~12)	이봉조 (11)	최순례 (11)
김중환 (11)	송창율 (11)	이상용 (11)	최인영 (11)
나창섭 (11)	신옥기 (11~12)	이수진 (10)#2104	최준태 (11)
민수중 (11~12)	양희영 (11)	이수진 (11)#1489	한성인 (11)
박두환 (11)	엄정현 (11~12)	이승현 (11~12)	현춘자 (11)
박영희 (11~12)	오상수 (11)	이완 (10~11)	
박재강 (11)	오정환 (11)	이원선 (11~12)	
박재현 (11)	왕일모 (11~12)	이종길 (11)	
박해영 (11)	유성복 (11)	이창호 (11)	
서상희 (11)	유창성 (11~11)	이희순 (10)	

【 본당 알림 】

-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필히 연락하길 바랍니다. (이수진 브랜드노: 404-933-8233)
- ◆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필히 사무실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사무실: 770-455-1380)

전례 봉사자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1/10 (토) 오후 7:00	이재돈	정영상 이지원	이준하 김태환
11/11 (일) 오전 8:30	이경환	서상희 서정원	오유진 남소호
11/11 (일) 오전 10:30	박줄리	전홍 최인경	이유나 김채빈 소현서 최예은
11/11 (일) 오후 12:15	Jenny Choi	Tomas Lee Rosa Kim	오다운 김아론
11/17 (토) 오후 7:00	이지연	김주환 김채현	송한솔 성리디아
11/18 (일) 오전 8:30	서정원	김준자 이영숙	신준완 최미나
11/18 (일) 오전 10:30	남수진	서재욱 서해경	소현교 김다혜 장재은 전지우외
11/18 (일) 오후 12:15	Daniel Kim	Thomas Na Hubert Chon	박진효 김태훈

전례 담당 구역

11/11 (일)	연중 제32주일	Marietta 자비
11/18 (일)	연중 제33주일	McCunning
11/25 (일)	예수그리스도 왕 대축일	South Atlanta
12/2 (일)	대림 제1주일	Tucker

점심 봉사 및 주차 봉사

일	자	점심 봉사	주차 봉사
11월 11일		Dunwoody	ME
11월 18일		성령기도회	꾸리아
11월 25일		ME	사목회
12월 2일		South Atlanta	울뜨레야

구역 미사

11/21 (수)	Johns Creek-1 최창희(베르나르도)형제님덕	오후 8시 404-821-1114
-----------	---------------------------------	-----------------------

◆예수회 한국 관구의 김주찬(알베르토) 신부님께서 성 김대건 성당의 새 보좌 신부님으로 부임하십니다. 신부님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수 감사절 미사 안내
11월 22일 (목) 오전 10시 30분
▶ 미사 후 성모회에서 점심을 준비 하며 오후 1시에 성당 문을 닫습니다.
▶ 추수 감사절 관계로 11월 23일 (금) 낮 12시 미사가 없으며 성당 사무실은 휴무합니다.

◆2018 년도 AA기금 납부 마감 안내
납부 마감일: 12월 2일 (일)
금년도 AA기금을 약정하신 분들 중 미납한세대나 새로이 납부하실 분 들 은 12월 2일(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문의: 사무실 (770-455-1380)

행사 안내

◆아기 예수님 봉헌 목주 기도
목적: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해 신자 개인의 지향을 목주기도로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봉헌.
기도 제출 마감: 12월 16일까지 성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에 개인별로 넣어 주시면 성탄 전야미사의 구유 예물로 봉헌함.
문의: 이영숙 (770-625-0787)

모집 안내

◆레지오 단원 모집 안내
새 남성 브레시디움 단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장소: 3층 302호
문의: 서재욱 (678-699-7470)
박순기 (678-793-5881)

◆Yoga 교실 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소성당
문의: 장해선 (470-599-7543)

정기 모임

- ◆성령 기도회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층 유아방
문의: 김성애 (678-779-1387)
- ◆다락방 기도회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114호
문의: 김영보 (404-376-1894)
- ◆꾸리아 월례 회의: 11월 11일 (일)
오후 12시 30분, 소성당
문의: 박순기 (678-793-5881)
- ◆성서 그룹공부 봉사자 모임
일시: 11월 11일 (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110호
문의: 최준태 (404-918-9763)
- ◆복사단 PTA 모임 : 11월 11 (일)
오전 11시 45분, 113호
문의: 신건혜 (404-428-5692)
- ◆M.E 모임: 11월 18일 (일)
오후 12시 30분, 소성당
문의: 손영덕 (678-896-1837)
- ◆빛과 소금 모임: 11월 18 (일)
오후 12시 15분, 유아방 (111호)
문의: 김영배 (404-723-0110)
- ◆사회 복지 분과 모임
일시: 11월 18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106호
문의: 서미영 (404-610-0057)
- ◆Marietta 자비반 모임: 11월 18일 (일)
오후 12시 30분, 대건도서관
문의: 김영환 (770-594-3234)
- ◆전례분과 모임: 11월 18일 (일)
오후 12시 30분, 108호
문의: 김상순 (770-820-9132)
- ◆요셉회 모임 : 11월 25 (일)
오후 12시, 소성당
문의: 황재숙 (862-222-0548)

교구 및 기타 소식 안내

- ◆교구2차헌금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이 11월 17일/18일에 있습니다.
- ◆본당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새홈페이지 주소: (http://kmccga.com)
- ◆40주년 기념집 온라인 발간 안내
본당 40주년 기념집을 온라인으로 발간 하였습니다.
웹사이트(https://issuu.com/kmccga/docs/kmcc_40yrs_final) 또는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access 가능합니다.
별도의 인쇄 책자는 실비(\$10)로 판매합니다.
문의: 박형근 (770-861-2553)
- ◆2019 년 매일 미사책 신청 안내
2019 년도 매일미사책의 신청을 주일 친교실에서 받고있으니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 \$40
문의: 김계환 (404-451-3782)
- ◆South Atlanta 구역의 故 이광명 (실라오)님의 추모 연도가 11월 16일(금) 낮 미사 후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 ◆주보 2면의 병 중에 계시거나 위중하신 교우분들을 위해 기도를 청하실 분 들 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주보에 광고를 게재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학교 안내

- ◆주일 학교 안내
교사 모집: 초,중,고 교사를 모집합니다. 초등부는 이중언어 가능하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정지연 (404-259-7670)
- ◆토요 대건 한국학교 안내
문의: 노시현 (678-677-3515)